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中 외투기업에 변함없는 투자 및 기업활동 당부

- 주한 중국상의 및 중국계 외투기업과 오찬 간담회 개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수) 12: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한 중국상공회의소와 주요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자** : 가오천 주한중국상의 회장, 위하이엔 중국국제무역촉진위 한국대표부 회장, 왕위제 중국건설은행 서울지점 대표, 리위통 중국광대은행 서울지점 대표, 왕이스 차이나유니콤코리아 대표, 주레이 페트로차이나 한국지점 사장 등 16명

오늘 간담회는 지난해 12.6일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던 ‘주한 외국 상의 간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자 지난 연말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기획했던 일련의 주요국 상의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 국 상공회의소와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최 권한대행이 직접 우리나라의 현 경제 상황과 외투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美·EU·日·中·佛·獨)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 참석

** '24.12.24(화) 서울재판클럽, '24.12.26(목) 주한미국상공회의소 간담회 既개최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 머리말연을 통해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시스템은 굳건하고 정부의 긴급 대응체계 아래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정부는 경제·금융 당국 간 회의체를 상시 운영하는 등 모든 경제주체가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한국과 중국은 '92년 수교 이래 긴밀한 소통으로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경제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특히 한중 FTA 발효 10주년인 올해가 무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중국 기업들이 한국 경제를 믿고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외투기업 지원 패키지 등 다양한 조치를 계속해서 마련할 예정으로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를 당부하였다.

이에 가오천 주한중국상의 회장을 비롯한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외투기업들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을 보여준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외투기업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시스템 안정화에 힘써 줄 것을 요청하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주요국 상의 및 외투기업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25.1.9(목) 주한 EU 상의 및 외투기업 간담회 예정

담당 부서 <총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책임자	과 장	최동일 (044-215-7650)
		담당자	사무관	박영우 (paxkoreana@korea.kr)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이승규 (044-200-2211)
		담당자	사무관	이은동 (eundong89@korea.kr)
담당 부서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책임자	과 장	권기만 (044-203-408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kimminsu701@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